

부산불교계 “문화예술로 포교해요”

부산지역 불교계가 금정산생명문화축전과 장승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포교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정산생명문화축전에 경우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선찰 대본산 법어사가 위치한 금정산을 주제로 열리는 문화축제로, 지역문화 육성뿐 아니라 포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호복지관의 장승축제 역시 복지관과 지역민이 공동주최자가 되어 지역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다.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금정산을 중심으로 열리는 ‘금정산생명문화축전 2004’는 부산민예총이 주최하는 행사로 부산시 지원금 5천만 원을 포함, 자체 경비와 후원금 등을 합해 총 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이다.

‘생명의 금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월 22일 오후 7시 시작되는 금정산 야간산행인 ‘달빛사상’을 시작으로 23일 열리는 효원국악연주단의 환경사랑 금정산 산상음악회, 바다사랑환경경매포럼(5월 24, 25일), 자연과 하나되는 생명문화 체험(26일), 온천천 생명보전 시민마당(27, 28일), 학술심포지엄(29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29일 오전 10시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는 시인이자 미학자인 김지하와 실상사 전 주지로 전국을 돌며 생명순례 탐방에 나서고 있는 도법 스님을 초청, ‘생명공동체로 가는 길’을 주제로 생명사상강연회를 연다.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장승축제 등 생명·환경·평화 주제 행사 다채 불법 전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특히 30일 열리는 ‘생명평화 인간따 잇기’ 행사는 이번 축제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오전 10시부터 금정산 동문에서 북문광장까지 4.5km를 인강따로 잇는다. 인강따 잇기에는 전국 탁발순례를 하고 있는 도법 스님과 수행 스님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의 ‘제1회 장승축제’는 5월 7일, 8일 용호동 관내 주민들을 위해 사라져 가는 장승을 도식

에 다시 세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축제는 복지관 마당과 인근 도로 주변에 장승 10두를 세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새로운 지역축제 마당이다.

장승축제 기간동안 용호복지관 인근에는 천태대장군, 지하여장군, 용호대장군, 용호여장군, 오륙도대장군 등 지역색이 물씬 풍기는 장승 10두가 세워지며,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제제가 올려진다.

장승축제는 57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장승제(7일 오후 2시), 장수잔치(7일 오후 3시), 주민참여축제(7일 오후 4시),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효 큰잔치(8일 오전 10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관현악 공연, 힙합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승 사진 콘테스트 및 장승 그림 대회(8일 오후 2시), 가족 노래자랑 등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특히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장승 사진 및 그림 대회는 초등, 중등, 고등 및 일반인 모두 참여가능하며 대상 금상 은상 등에 대해 시상도 이뤄지며 수상작은 복지관내에 전시하게 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프랑스 경제사학회 80명 템플스테이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원들이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좌선하는 모습.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원 80명이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경제사학회는 대학교수, 교사, 경제,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의 대표적 지식인 단체로, 80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한국 전통 사찰을 해인사서 1박2일 “세시봉” 당에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한국방문은 회장 자크마르세이유(Jacques Marsille, 파리1대학 역사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 외교 안보연구원 정상현 외무행정관의 추천에 의한 것으로 프랑스 내에 불교에 대한 열정을 집적해 했다.

23일 오후 6시 회식의 수행복을 갈아입으면서 시작된 한국의 산사체험은 푸른 눈의 수련생에게는 이색 체험 그 자

체였다. 범종각에서 들리는 범고와 범종소리는 이들을 매료시켰고, 예불시간의 장엄함에 빠져들었다. 입식생활에 익숙한 탓에 좌식의 산사체험이 힘들었지만 애써 자세를 잡아 좌선도 하고 발우공양도 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보경 많은 회원이 한 차담을 나누는 시간 동안에 나왔다. “스님은 왜 출가했습니까?”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평생 처음 불교의식으로 예불을 드린 프랑스경제사학회 회장 자크마르세이유 교수는 “발우공양, 예불 등을 체험하며 해인사에서 보낸 하루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불심 흥법원, 부산신도회로 통합



불심흥법원 인수인계 이후 부산불교신도회 이사회가 인사하고 있다.

흥법바라미제, 장학금 지급 등 포교와 불교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왔던 (재)불심흥법원이 부산불교신도회로 통합됐다.

불심흥법원(이사장 하도명)은 4월 22일 부산 신창농장 흥법사에서 불심흥법원의 이사직은 물론 사업 전반을 부산불교신도회로 인계했다.

하도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 불교신도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을 향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국제불광회, 아주연합회 환영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협회장 심삼)는 4월 22일 흥법사에서 국제불광회 아주연합회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일본, 대만을 비롯 7개국의 국제불광회 아주 지역 임원 100여명과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회원 등 4백 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흥법사가 위치한 신창농장에 잔디마당에서 한국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알리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대구 맹인불자회 산행대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4월 25일 제 13회 시각장애인 불자 산행대회를 팔공산 갖바위에서 개최했다.

이날 산행대회에는 시각장애인 150여명과 자원봉사자 약 150여명이 동참해, 법회를 봉행한 뒤 갖바위 정상까지 산행을 했다.

이날 행사는 보현사 청년회를 비롯해 50사단 장병 100여명, 대구 오성고 학생 20여명, 대불봉사단, 성심회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배지선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운경로 재현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도는 모습.

조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는 등 600여년 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까지 이운한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과 심의조 합천군수 등도 당시 인물의 모습을 하고 나섰으며, 경판을 실은 소와 달구지, 지게가 등장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빗속을 뚫고 이운된 팔만대장경판은 해인사 일주문을 지나 장경각에 봉안됐으며 1박2일의 정대불사가 이어졌다. 역대 큰스님들의 부도탑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편으로 시작된 정대불사는 보경당에서 지관, 원용, 종묵 스님의 해인삼매 법문에 이어 밤새 영가천도와 대령관육 의식이 거행됐다. 정대불사는 28일 오전 보경당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도를 도는 정대요집을 끝으로 회향했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마창불교 지도자 경제회복 기원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사암연합회(회장 도근) 공동 주최로 25일 창원 성주사에서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마창 불교지도자 기원법회가 열렸다.

도근 스님의 기원문 낭독, 원정 스님의 봉행사, 불교지도자 및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등 정계 인사들의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 법회에 이어 2부 행사로는 제 8대 이사장 지태 스님, 회장 원정 스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준공

4월 25일, 3천여명 참석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문)이 4월 25일 준공법회(사건)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대 스님, 포항사암연합회 회장 경천 스님, 오아사 주지 장주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문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준공법회는 헌관식, 테이프 절단식, 축사, 법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원장 혜문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와 일체 유생 무생의 정성으로 준공된 도량이 부처님의 진리 세세생생 이어가는 여래도량으로 무궁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2002년 3월 24일 포항시 우현동 6,100여 평 대지에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연면적 399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동기와 지붕의 전통한식구조와 현대식 월광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됐다. 신축법당은 불법승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물 양면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법당에는 36조사를 모셨다.

포항=배지선 기자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회향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병행하고 가사불사 회향과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자이다.



1. 일 시 : 불기 2548(2004)년 5월14일(음 3.26) ~ 15일(음 3.27) 2일간

5월 14일	5월 15일
◇ 오후 2시 : 가사불사정안	◇ 새벽 3시 : 새벽예불
◇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 오후 4시 : 보살계 법문	◇ 오전 7시 : 보살계 법문
◇ 오후 7시 : 보살계 법문	◇ 오전 9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의식
◇ 오후 8시 : 전국 불일회 및 21교구 신도회 총회	◇ 오전 11시 : 보조국사 종재
◇ 오후 10시 : 철야정진	◇ 오전 11시 30분 : 영가천도재

2. 동참방법 : 삼월불사나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0085 우체국(예금주 : 송광사)

● 가사불사 : 한 벌 동참금 : 300,000원

· 가사불사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255 우체국(예금주 :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